전남도, 미래 혁신 인재 육성 속도낸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4기 개강…수강생 168명 참여
‘자연·미래 공존 호남’ 주제 5월11일까지 5회차 교육

전남도가 ‘호남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혁신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속된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 육성으로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 정철·박원종·임지락·류기준 전남도의원, 청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4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호남 청년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남 대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1기부터 3기까지 25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전원이 전남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22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 총 168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직업군도 지난해보다 다양해졌다.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호남’을 주제로 5월11일까지 5회 차로 진행된다.

이날 열린 1회 차에선 대표 선출 및 조별 네크워킹으로 수강생 간 연대를 강화했다.

추후 2회 차에서는 명사 특강으로 김관훈 두끼떡볶이 대표의 ‘내 미래를 바꿀 퍼즐 조각은?’,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대중과 과학의 연결고리’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3회 차 노무·회계·세무 강의와 팀워크 프로그램이, 4회 차 호남 정신 계승을 위한 하의도 현장학습, 5회 차 장항준 감독의 ‘나의 인생 영화, 영화가 되는 삶’ 강의와 수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전원은 전남도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전남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해 새로운 미래의 선구자이자 주인공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지난 16일 오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응급환자 이송·대응체계 강화

道응급의료협의체 회의…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논의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도청에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게끔 경증 환자 분산 이송을 당부했다. 또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나주시 소재)와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광양시 소재)를 3월에 추가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로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이낙연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세력 재건”

새로운미래 이낙연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광산을)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에게 정권교체의 희망을 드리고 민주세력을 재건하겠다”며 “광주와 광산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이 광주 공천에서 현역의원 8명 중 7명을 교체했는데, 누가 방탄 잘할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공천 준 듯하다”며 “민주당이 ‘방탄광역시’로 만들고 있는 광주를 우리가 사랑하던 광주시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와 광산구의 발전을 위한 ‘광주 5대 비전’과 ‘광산 6대 목표’를 발표했다. /박선강 기자

김성환, 자전거 이용 선거운동 눈길

무소속 김성환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동남을)가 자전거로 선거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많은 분을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선거구를 돌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무소속 출마를 응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광주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며, 저의 무소속 당선은 민주당의 광주를 무시하는 행보에 대한 강력한 옐로카드가 될 것”이라며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5·18 정신 존중 선명한 입장 갖고 있다”

광주 찾은 한동훈, 실감콘텐츠큐브·충장로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비판 받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한 위원장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 입주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광주 출마자 8명과 함께 충장로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충장로 우체국에서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지금 (호남이) 발전하고 있나.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며 “여러분께서 견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 시키려는 세력과 전진 시키려는 세력 간의 선택의 문제”라며 “진짜 승리를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사랑, 호남 사람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